

### “정당공천 폐지 문제 결자해지 하자”

# 안, 박대통령에 영수회담 거듭 제안

안철수,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

민생·안보·개혁 '3대 중심' 제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결자해지가 맞다”며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제1 야당 대표 자격으로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하며 “회동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기초 무공약 파기를 사과한 데 대해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하느냐”면서 “중정인가, 월권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근 출범한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향점으로 민생과 안보, 합리적 개혁을 '3대 중심'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안보문제와 관련, 최근 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3대 제안인 '드레스덴구상'에 환영을 표시한 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대북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정권의 독점물이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의 지지와 공감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권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개혁해 ‘막말국회’, ‘방탄국회’를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 윤리위원회에 국회를 참여시키고 국회윤리규칙을 강화해 국회의원 징계 때 직무정지제 도입하는 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정당의 청렴도 조사와 부정부패 지수를 개발해 그 결과를 국고지원금과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위의 국회로부터 독립 및 정치적 입김 차단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 원인제거자의 소속정당 당해 선거 공천 금지 ▲부정부패로 의원직 상실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승계 금지 등도 다 밝혔다.

민생문제와 관련, 안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함께 민생정치를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의 장과 모습을 만들겠다”면서 “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수 청하는 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왼쪽은 김한길 대표. /연합뉴스

## 한-중,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손배소송 연대

中 피해자 추모행사 국내 가족 참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한국과 중국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본격적인 공조에 나섰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은 2일 오전 중국 허베이성 성도인 스자좡시에서 피해자 추모 행사를 한 뒤 일본 기업들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 징용 피해자 가족 대표와 한국 변호사도 참석, 이들을 격려하면서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쓰비시공업(주)에 대한 피해노동자대표단(이하 대표단)은 이날 오전 스자좡 평안(平安)공원 기념비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를 열어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한중 양국의 피해자 대표들은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하면서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중국 대표단은 이어 피해자와 가족 등 151명을 원고로 허베이 고급인민법원에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총 2억2700만 위안(약 39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

다. 징용 피해자인 리원더(88)씨 등 소송대표 6명은 전례를 대표해 이날 법원에 소장 제출했다. 소송 원고들은 강제노동 도중 숨진 희생자에게 각 200만 위안, 생존해 돌아온 피해자에게는 각 150만위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중일 양국 주요매체에 대한 사회 광고도 요구했다.

대표단은 오후에는 토론회를 열어 한국인 징용자와 변호사들이 겪은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양국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한중 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서 공조와 연대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 6·4 지방선거 현장

시도교육감

윤봉근 “단일화 실패...장휘국 출마 포기해야”

윤봉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후보 단일화 무산과 시민사회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휘국 교육감의 출마 포기를 요구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장 교육감과 일부 사회단체 세력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광주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진보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장 교육감은 광주교육을 이끌고 갈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김왕복, ‘아침밥 챙겨주기’ 등 주요정책 발표

김왕복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아침밥 챙겨주는 학교와 학교협동조합 전면 도입 등 2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아이들이 아침을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교육이자 최고의 사랑”이라며 “지역 산지 농수산물 및 로컬푸드 기관·단체와 연계해 아침급식 식단을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최형식 담양군수, 예비후보 등록

최형식 담양군수가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최 군수는 이날 “더 큰 담양 발전론”을 내걸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담양을 시장과 인근 상가 등을 돌며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서민·농민정책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소득 3만불 ▲인구 7만명 등을 담은 제2차 뉴담양 플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상집, 친환경전자선거 타고 선거운동

김상집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일 친환경전자선거를 타고 광주 서구 전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만남은 이색 선거운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친환경 행복서구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면서 “서구 지역 모든 동네를 자전거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확대하여 녹색교통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일 “서구, 세계적 자동차 도시로 건설”

이성일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일 “광주 자동차 100만대 도시에 맞춰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는 서구를 세계적 자동차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자동차 100만대 기지 조성에 따른 배후 인프라 투자유치 및 장비·부품업체 집적화 등 자동차 관련 부가가치 창출사업의 추진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종진 “쌍암공원, 복지건강 생활공원 개발”

서종진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일 “쌍암공원에 주민생활건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쌍암공원을 지역민의 미래를 반영한 복지건강 생활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특히 광산구 북부권의 핵심인 첨단1·2동 주민들을 위한 주민생활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광산구 생활복지정책의 균형을 잡겠다”고 주장했다.



배병채, 곡성군수 출마...“고향위해 봉사”

배병채 곡성군수 예비후보는 오는 8일 곡성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여는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그는 “정령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고향을 위해 봉사와, 곡성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늘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곡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중, 광주시의원 재선 도전

광주시의회 김민중의원(광산 4)은 지난 31일 예비후보등록을 한 뒤 ‘다함께 행복한 더 좋은 광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민과 소통을 통해 민의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 심부름꾼이지,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일꾼의 역할을 갖고 지역발전은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상혁,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김상혁 전 북구의회 의장은 2일 “광주시의원(북구 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구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광주발전과 어르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친화도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정종인, 광주시의원 출마...“滿선거” 약속

정종인 광주시의원(북구 6선거구) 예비후보는 2일 “현수막 공해 없는, 문자 공해 없는, 소음 없는 ‘청(淸)청(淸)청(淸) 선거운동’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기존 선거운동 방식 대신 아파트 단지과 공원, 거리 등으로 소규모 거리공회 형식의 문화공연을 선거운동에 접목해 소음공해 대신 귀가 즐거운 선거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권민·박정옥 기자 cki@kwangju.co.kr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 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현재 영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적 교통양호 매매 15억

**전/대지**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포함) 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 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14,215㎡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 지역 매매 7억
- 나주시 다시면 전 152,000㎡ 임야 86,000㎡ 대지, 주택포함 매매32억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방동참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5천만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 2,975㎡(대지포함)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지역, 매 1억 4천만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1억7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